

민옹전(閔翁傳)

박지원(朴趾源) 지음 / 장석규 주해

■ 줄거리

남양(南陽)에 사는 민유신(閔有信)은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종군한 공으로 첨사(僉使)를 제수받았으나, 집으로 돌아온 후로 벼슬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하였으며 옛사람들의 기절(奇節)과 위적(偉蹟)을 사모하여 7세부터 해마다 고인들이 그 나이에 이룬 업적을 벽에다 쓰고 분발하였으나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한다.

70세가 되자 그 아내가 올해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는다고 조롱했는데, 민옹은 기뻐하며 범증(范增)은 기이한 계교를 좋아했다고 쓰고 태연하였다.

작자가 18세에 병으로 누워 음악·서화·골동 등을 가까이 하며 더러는 손님을 청해 해학과 고담을 들으며 마음을 위안하고자 했으나, 우울한 증세는 풀 길이 없었다. 마침 민옹을 천거하는 이가 있어서 그를 초대했는데, 민옹은 도착하자마자 인사도 나누지 않고 때마침 피리 불던 이의 뺨을 때리며 “주인은 기뻐하는데, 너는 왜 성을 내느냐?”고 꾸짖었다. 작자는 웃으며 악공들을 돌려보내고 그를 맞이했는데, 민옹의 나이는 73세였다. 민옹은 기발한 방법으로 환자의 입맛을 돋우어주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민옹은 어느 날 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을 마구 골려대고 있었다. 그들은 민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만든 어려운 질문을 퍼부었으나 민옹은 끄떡도 않고 대답하였다. “귀신을 보았는가?” “어두운 데 앉은 사람이다.” “신선은?” “세상 살기를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것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 “가장 맛있는 것은?” “소금”, “불사약은?” “밥.”,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 이처럼 그의 대답은 쉽고 막힘이 없었으며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열 사람을 놀리기도 해서 모두 웃었으나 그는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 해서(海西)에 황충(蝗蟲)이 생겨 관가에서 황충 잡기를 독려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민옹은 곡식을 축내기로는 종로 네거리를 메운 칠 척 장신의 황충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그것들을 잡으려 하나 커다란 바가지가 없는 것이 한이라고 하여 일행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어느 날 민옹이 찾아오자 작자는 파자(破字)로 그를 놀렸다. 그러나 민옹은 놀리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 버렸다. 그 다음해에 민옹은 세상을 떠났다. 민옹은 『역경(易經)』에 밝고 『노자(老子)』를 즐겨 읽으며, 보지 않은 글이 없었다.

■ 본문

민 영감은 남양 사람이다. 무신년(戊申年, 영조 4년, 1728) 민란(民亂)에 관군을 따라 토벌에 끼여서, 그 공으로 ^{인물의 출신지 소개. 고전소설 서술의 관습} ^{이인좌(李麟佐)의 난} 첨사(僉使)¹⁾ 벼슬을 얻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끝내 벼슬하지 않았다.

^{행적의 요약적 제시. 말하기(telling)} 민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인물의 능력} 잘하였다. 특히 옛 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인물의 지향}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에 북받치면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 ^{비분강개(悲憤慷慨)} 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옛 사람의 삶의 길과 당시의 현실과의 괴리를 괴로워함} 그는 일곱 살이 되자,

“항탁(項橐)²⁾은 이 나이에 남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벽에다 크게 썼다. 열두 살 때에는,

“감라(甘羅)³⁾는 이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

라고 썼으며, 열세 살 때에는,

“외황아(外黃兒)⁴⁾는 이 나이에 유세(遊說)⁵⁾하였다.”

라고 썼다. 열여덟 살 때에는,

“곽거병(霍去病)⁶⁾은 이 나이에 기련(祈連)에 싸우러 나

1) 첨사(僉使)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의 총칭. 모두 조선시대에 절도사(節度使)의 관할에 속한 진(陣)의 군직 이름이다.

2) 항탁(項橐) : 중국 춘추 시대 사람. 유항(劉向)이 지은 <전국책(戰國策)>의 ‘진책(秦策)’에 의하면 그는 7세에 공구(孔丘), 즉 공자(孔子)의 스승이 되었다고 전한다.

3) 감라(甘羅) : 중국 춘추 시대의 장수.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의 ‘저리자감무열전(樗里子甘茂列傳)’에 의하면, 진(秦)나라의 명신인 감무의 자손인 감라는 나이 열둘에 장수가 되어 조(趙)나라와의 전쟁에 나갔다고 한다.

4) 외황아(外黃兒) : 외황이라는 고을의 아이. 사마천의 <사기(史記)> ‘항우(項羽) 본기(本紀)’에 의하면 항우가 외황이라는 고을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고 15세 이상의 사내를 모두 죽이려 할 때, 그 고을 아전의 아들이 항우를 설득하여 그 살육을 막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열세 살이었다고 한다.

5) 유세(遊說) :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갔다.”

라고 썼으며, 스물네 살 때에는,

“항적(項籍)⁷⁾은 이 나이에 오강(烏江)을 건넜다.”

라고 썼다. 그러다가 마흔이 되었지만, 아무런 이름도 이
↳ 불혹(不惑)
 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또,

“맹자(孟子)⁸⁾는 이 나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 부동심(不動心)
 고 크게 썼다. 그 뒤에도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글들을
↳ 구체적 사실의 나열 후 유사한 내용의 요약적 제시
쓰기에 지치지 않았다. 그의 집 벽은 모두 검정투성이가

↳ 과장법
되었다. 일흔 살이 되자 그의 아내가

↳ 고희(古稀), 칠순(七旬), 칠절(七耋)
 “영감, 올해에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으시려오?”

↳ 먹으로 뒤덮인 벽을 조롱하는 말
 하고 놀렸다. 그러자 민 영감이 기뻐하면서

“그렇지. 당신은 빨리 먹이나 갈아 주구려.”

하고 말하더니 곧

“범증(范增)⁹⁾은 이 나이에 기이한 껍을 좋아하였다.”

라고 커다랗게 썼다. 그의 아내가 발각 화를 내며
↳ 분기탱천(憤氣撐天)

“껍이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장차 언제나 쓰시려오?”

↳ 실용성에 가치를 두는 아내
 하고 따졌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옛날 여상(呂尙)¹⁰⁾은 여든 살에 장수가 되었지만, 새매
↳ 팔순(八旬), 팔절(八耋)

6) 광거병(霍去病) : 중국 전한(前漢)의 장수. 사마천의 <사기(史記)> ‘위장군표기열전(衛將軍驍騎列傳)’에 ‘대장군의 누이가 낳은 광거병은 나이 열여덟에 천자의 총애를 받아 입궁하여 시중(侍中)이 되었다. 기마술과 사격술에 능한 광거병은 위청(衛靑)의 군대에 두 번에 걸쳐 종군하였다.……거연택(居延澤)을 지나 기련산(祁連山)까지 진격하여 매우 많은 흉노(匈奴)를 죽이고 포로를 얻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7) 항적(項籍) : 중국 초(楚)나라 왕. 사마천의 <사기(史記)> ‘항우(項羽) 본기(本紀)’에 ‘항적(項籍)은 하상(下相) 사람으로 자는 우(羽)이고, 처음 거사를 시작한 것은 스물네 살 때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진(秦)나라 말기의 농민 봉기 지도자이자 항량(項梁)의 조카이다. 진나라가 망하자 자립하여 서초패왕(西楚霸王)이 되었다. 초한(楚漢)전쟁에서 유방(劉邦)에게 패하여 오강(烏江)에서 자결했다.

8) 맹자(孟子) : 유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교육자. <맹자(孟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 ‘나는 사십이 된 이후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9) 범증(范增) : 초왕(楚王) 항우(項羽)로부터 아부(亞父 : 아버지)에 버금가게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초나라의 군사(軍師)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항우본기’에 ‘거소(居鄆) 사람 범증은 나이 칠십이 되도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기이한 계교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10) 여상(呂尙) : 중국 주(周)나라의 정치가로 무왕(武王)의 스승. 강태공(姜太公)으로 널리 불리는 사람. 문왕(文王)을 위수(渭水) 가에서 처음 만나 스승이 되었으며, 뒤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는 데 큰 공헌을 한 태공망(太公望)을 가리킨다. <시경(詩經)>의 ‘대아(大雅)’ ‘대명(大明)’ 중

처럼 드날렸다우. 이제 나를 여상에게 비한다면, 오히려
↳ 상대적 가치관
어린 아우뻘밖에 안 된다우.”

지난 계유년(癸酉年, 1753), 갑술년(甲戌年, 1754) 사이에

내¹¹⁾ 나이는 열일여덟이었다.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근거
노래, 글씨, 그림, 옛 칼, 거문고, 골동품 등의 여러 잡물들
↳ 다양한 관심의 나열.
을 제법 좋아하였다. 게다가 지나는 손님들을 모아놓고 익

살스럽거나 우스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었
↳ 일시적 처방.
지만, 깊숙이 스며든 우울증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 서술자 ‘나’가 가진 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민 영감은 기이한 사람이지요.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
↳ 주인공이 가진 특기의 요약적 제시.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도 잘한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나고도 괴이하고, 능청스

럽고도 걸쭉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치고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 우울증을 앓는 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서 그에게 ‘함께 놀러오라.’

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민 영감이 나를 찾아 왔는데, 나는
 마침 벗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민 영감은 서
↳ 무위도식(無爲徒食)
 로 인사도 나누기 전에 통소 부는 자를 한참이나 들여다

보더니, 그의 뺨을 치며 크게 꾸짖었다.

↳ 우울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행동.
 “주인은 즐겁게 놀자는데, 너는 어째서 성난 꼴로 있는
↳ 악공의 역할과 신분에 대한 암시
 냐?”

나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까닭을 물었다. 민 영감이 말
 하였다.

“저 놈의 눈알이 잔뜩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
↳ 연주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주관적으로 해석
었거든요. 저게 골낸 게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크게 웃었더니, 민 영감이 또 말하였다.

“꼭 통소 부는 놈만 성난 게 아니라고. 피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
↳ 인물의 외양을 비유적으로 표현. 직유법, 열거법, 반복법
푸린 채 시름겨운 듯하다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난 듯, 아이와 종놈들

‘태사(太師)이신 여상 선생 / 매처럼 떨치셨네.’라는 구절이 있다.

11) 내 : 이 글을 지은 박지원(朴趾源) 자신이다

까지도 웃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런 음악으로

어찌 기쁠 수 있겠소?”

↳음악의 효용성 제시. 설의법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 영감을 맞아들여 앉혔다.

그는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흰 눈썹이 눈을 덮었다. 그가

↳외양 묘사

“내 이름은 유신이고, 나이는 일흔세 살이라우.”

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수? 머리가 아픈 거유?”

↳육체적인 병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오.”

대답했더니, 그는 또

“배가 아픈 거유?”

↳육체적인 병

하고 물었다. 내가 또

“아니오.”

대답했더니,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아니라고.”

↳병에 대한 주관적 판단. 단정적 어조

그는 곧 지게¹²⁾를 열고, 들창을 걷어 괴었다. 바람이 소

슬하게 불어오자 내 마음이 차츰 시원해져서, 예전과 확실히

↳인위적 치료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짐으로써 치료 가능함을 암시

달라졌다. 그래서 민 영감에게 말하였다.

“나는 특히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잔다

↳내가 병이라 여기는 거식증과 불면증

오. 이게 바로 병이지요.”

민 영감이 몸을 일으켜 나에게 치하(致賀)¹³⁾하였다. 내가 놀라면서

↳예상 밖의 대답 때문에

“영감님, 무엇을 치하하신단 말지요?”

하고 물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은 집이 가난한데 다행히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니,

↳같은 현상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소? 게다가 잠까지 없다니, 낮밤

을 아울러서 나이를 갑절이나 사는 게 아니겠소? 살림살

이가 늘어나고 나이를 갑절로 산다면, 그야말로 수(壽)와

부(富)를 함께 누리는구려.”

얼마 뒤에 밥상이 들어왔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숟가

↳거식증의 구체적 증상

락을 들지 않았다. 이것저것 골라서 냄새만 맡을 뿐이었

다. 민 영감이 갑자기 크게 성내며 일어나 가려고 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영감님, 왜 노해서 가시렵니까?”

물었다. 민 영감이 말했다.

“당신은 손님을 불렀으니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권해야 지. 어째서 혼자 먹으려고 하오? 이걸 나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나는 사과하면서 민 영감을 붙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밥상을 올리게 하였다. 민 영감은 사양하지 않고, 팔뚝을 걷어붙였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음식을 가득 올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의 묘사. 보통 사람의 일상적 행위. 대유법

다. 나는 저절로 입안에 침이 흘렀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거식증의 치유

코밀이 트였다. 그제야 옛날처럼 밥이 먹혔다.

밤이 되자, 민 영감은 눈을 감고 단정하게 앉았다. 내가

↳시간 경과의 직접 제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걸었지만, 그는 더욱 입을 다물었

↳인물의 외양과 행위의 묘사

다. 나는 몹시 무료하였다. 한참 뒤에 민 영감이 별안간 일어나서 촛불 뚝을 끊어 버리며 말하였다.

“내 나이가 젊을 때엔 눈에 스치는 글마다 곧 외웠지만, 이젠 늙었다오. 그래서 당신과 내기 약속을 해 보리다. 평생 보지 못한 책을 뽑아내어 각기 두세 번 눈으로 훑어본 뒤에 외워 보려오. 만약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게 어떻겠소?”

나는 그가 늙었음을 기화(奇貨)¹⁴⁾로 하여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김

“그러지요.”

대답하고는 곧 시령¹⁵⁾ 위에서 「주례(周禮)」¹⁶⁾를 뽑았다.

14) 기화(奇貨) : 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그런 기회.

15) 시령 : 물건을 엮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16) 주례(周禮) : 주(周)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戰國時代)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주관 周官》 또는 《주관경 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경전에 포함되면서 예경(禮

12) 지게 : 지게문.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

13) 치하(致賀) :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그 책에서 민 영감은 「고공(考工)」¹⁷⁾ 편을 골랐고, 나에게
는 「춘관(春官)」¹⁸⁾ 편이 돌아왔다. 잠깐 뒤에 민옹이,

“나는 벌써 다 외웠다우.”

하고 나를 일깨웠다. 나는 아직 한 차례도 훑어보지 못한

지라, 깜짝 놀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청하였다. 영

감은 자꾸만 재촉하여,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는 그럴

↳주인공이 제시하는 불면증의 치료법

수록 외울 수가 없었다. 졸린 듯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하늘이 밝은 뒤에야 민 영감에게

↳시간 경과의 직접 제시

“어제 외운 글을 기억하시오?”

물었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댔요.”

하루는 밤늦도록 민 영감과 이야기하였다. 민 영감이 갈

↳새로운 화제(에피소드)의 시작

이 앉은 손님들에게 농담도 하고 꾸짖기도 했는데, 민 영

감을 막아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한 손님이 민 영감을

↳사건의 요약적 제시, 말하기

궁색하게 하려고 물었다.

↳보여주기(showing) 방식으로의 전환 표지. 사건의 유발 기능

“영감님은 귀신을 보았소?”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유무 확인으로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질문 ①

“보았지.”

“귀신은 어디에 있소?”

민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한 손님
이 등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향하여 소리쳤다.

“귀신이 저기 있다.”

그 손님이 성내면서 민 영감에게 따졌다. 민 영감이 말
하였다.

“밝으면 사람이 되고, 어두우면 귀신이 되는 법이랴오.

↳주인공의 귀신관

지금 당신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밝은 곳을 살피고, 얼
굴을 숨긴 채로 사람을 엿보았으니, 어찌 귀신이 아니겠
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유무 확인으로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질문 ②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랴오. 부자들은 늘 속세
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주인공의 신선관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유무 확인으로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질문 ③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아도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

러, ‘내가 팽조(彭祖)¹⁹⁾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後生)이다.’ 하고 말하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홀쩍홀쩍 읊디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리 슬퍼하나?’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합디다. ‘나는 저 동쪽 이웃

집 어린아이와 동갑이었는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별

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또 그는 목

덕(木德)²⁰⁾에 나가 섭제(攝提)²¹⁾에 역사(歷史)를 시작하고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마침내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

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

經)에 속한다고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기 禮記》·《의례 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는 주나라 초기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하고, 금문학파(今文學派)에서는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며, 또 한대(漢代) 유홍(劉歆)의 위작(僞作)이라고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진(秦)의 청동기 명문(銘文)의 기록에 의거, 대체로 전국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7) 고공(考工) : 고공기(考工記). <주례(周禮)>의 편명(篇名)으로 궁실(宮室)의 조영(造營)·수레·악기·병기 등에 관한 기술이 실려 있는 기술서이다.

18) 춘관(春官) : <주례(周禮)>의 편명으로, 중국 주대(周代)의 육관(六官)의 하나로서 예법(禮法)·제사(祭祀)의 일을 맡았으며, 춘관의 장(長)을 대종백(大宗伯)이라고 하였음.

19) 팽조(彭祖) : 신선의 이름. 요(堯)임금의 신하로 은(殷)나라 말년까지 팔백 년을 살았다고 한다. 진(晉)나라 갈홍(葛洪)이 편찬한 의서 <신선전(神仙傳)>에 의하면 ‘팽조의 성은 전(錢)이요 이름은 갱(鏗)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20) 목덕(木德) : 중국 상고시대의 삼황(三皇) 중 하나인 천황씨(天皇氏)의 별칭. <사략(史略)>에 의하면 ‘태고에 천황씨는 목덕으로 임금이 되어 인년(寅年)부터 역사를 시작하니 애써 공들이지 않아도 일이 스스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구절이 있다.

21) 섭제(攝提) : 고갑자(古甲子)의 십이지(十二支) 중 인년(寅年).

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
 ↳일상사, 일상 생활
 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
 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육체적으로 늙음과 거리가 먼 현상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
 ↳나이 많음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풍부함을 의미함
 짝 사라졌다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슬퍼
 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
 ↳패배에 대한 인정
 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디다. 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
 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
 ↳간접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갖춘 사람이 대접 받아야 하는 당위성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유무 확인으로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질문 ④
 “보았지.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
 을 갈아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
 로는 수정(水晶)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대구법, 반복법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맛나게 하는 일의 중요성 언급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조?”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유무 확인으로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질문 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밥
 모르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
 ↳복령이 불사약으로 여기는 근거
 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 만에 복령(茯苓)²²⁾이 되지.
 ↳불사약이라 여기는 약재
 인삼(人蔘) 가운데는 신라(新羅)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
 ↳불사약이라 여기는 약재
 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땅
 ↳인삼 외양의 묘사와 비유. 인삼이 불사약으로 여기는 근거
 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구기(枸杞)²³⁾가 천 년 되면
 ↳불사약이라 여기는 약재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
 ↳구기자가 불사약인 근거.
 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
 ↳몸에 좋다는 상식과 통념에 반대되는 현상
 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
 탄식합디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옛날에
 신농씨(神農氏)²⁴⁾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

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
 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
 ↳평범 속의 진리,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병예 제시
 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셈이지. 그래
 ↳밥이 가장 나은 불사약임, 진리의 구체적 검증
 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밥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불사약(밥)의 구체적 효험
 민 영감은 언제나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
 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머금었
 으니, 변사(辯士)²⁵⁾라고 할 만하였다. 그 손님도 물을 말이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
 막혀서 다시금 따지지 못하게 되자, 별걱 화를 내면서
 ↳유구무언(有口無言)
 “그럼 영감님도 역시 두려운 게 있소?”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유무 확인으로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질문 ⑥
 하고 물었다. 민 영감이 잠자코 있다가 별안간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였다.
 ↳반언어적(준언어적) 표현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우. 내 오른쪽 눈은 옹
 ↳보통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
 이고, 왼쪽 눈은 범이거든.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
 은 팔은 활처럼 생겼지요. 내 마음을 잘 가지면 어린아이
 ↳내가 스스로 해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열거법, 직유법, 은유법
 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도 될 수 있다우.
 ↳대조적 상황을 주장의 근거로 삼음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꿇고 망칠 수도
 ↳두려움의 이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도 ‘자신의 사
 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²⁶⁾라고 하였고, ‘사심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²⁷⁾ 하였지요. 성인께서도 스스로
 ↳전고를 주장의 근거로 삼음
 를 두려워하신 거라우.”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야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강조
 민 영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골탕을 먹이기 위한 술책
 대답은 언제나 메아리처럼 빨랐다.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리
 ↳뜻을 이루지 못했다.

(姜).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지녔으며, 백성들에게 농업·의료·역술(易術)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일찍이 독초(毒草)와 양초(良草)를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백 가지 약초를 먹어 보았고, 맹독 성분을 가진 단장초를 맛보다 중독되어 죽었다고 한다.

25) 변사(辯士) : 말솜씨가 매우 능란한 사람. 달변가(達辯家).

26)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 : ‘구기복례(克己復禮)’를 풀이한 말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 편에 나오는 말이다.

27) ‘사심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 : <역경(易經)>에 나오는 ‘한사존성(閑邪存誠)’을 풀이한 말이다.

22) 복령(茯苓) :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잔나비겉상과의 복령의 균핵으로 바깥 층을 거의 제거하여 만든 약재

23) 구기(枸杞) : 구기자나무. 줄기는 가늘고 회백색이며 과실은 약용하고 어린 잎은 식용한다.

24) 신농씨(神農氏) : 중국 상고시대의 삼황(三皇) 중 하나로 성은 강

기도 했으며, 곁에 앉은 사람을 놀리기도 하였다. 사람들
말하기 방법과 달변가임에 대한 직설적 제시. 열거법
 이 모두 허리를 잡고 웃어도, 민 영감은 얼굴빛 하나 변하
포복절도(抱腹絶倒)
 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태연자약(泰然自若)
 “해서(海西)²⁸⁾ 지방에 황충(蝗蟲)²⁹⁾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사실의 제시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은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황충에 대한 사실적·구체적 정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³⁰⁾이 되고, 붙으면 모(蠹)³¹⁾
 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
 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원인의 근원적 제거 방식
 민 영감이 말했다.

“이 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내
 보기엔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사람들
 황충일 뿐입니다.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요.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
사람의 모습과 행동의 묘사
 슌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
탐욕과 허장성세.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층
 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습니다.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
아부. 아첨. 권모술수

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
부정적 현실의 고발과 비판. 위정자에 대한 조롱과 풍자
 은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푸거나 덮어서 없애 버리기 위한 도구나 수단. 은유법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
비유적 언어에 대한 물이해
 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어리석은 군중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과 비판의식을 지닌 인물의 특성 강조
 어느 날 민 영감이 찾아왔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은어
 (隱語)로,

“춘첩자(春帖子)³²⁾ 방제(龍啼)”

라고 말했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춘첩자는 ‘문(門)’에다 붙이는 문(文)’인 만큼 바로 나의
파자(破字) 놀이
 성(姓)인 민(閔)일 게고, 방(獐)은 ‘늙은 개’니까 나를 욕하
 는 말일 테지. 제(啼)는 내 이빨이 빠져서 말소리가 웅얼
 대는 게 듣기 싫다는 뜻일 테지. 당신이 만약 ‘방’이 두렵
 다면, 견(犬)을 버려야 할 거요. 또 제가 듣기 싫다면 그
 구(口)를 막아 버려야 하겠지. 그러면 그 나머지 글자인
 ‘제(帝)’는 ‘조화(造化)’를 뜻하고, ‘방’은 ‘큰 물건’을 뜻하지
 요. 그렇게 해서 ‘제’자에다 ‘방’자를 덧붙이면, ‘크다’는 뜻
 이 되는 동시에 그 글자 모양은 방(𪔐)이 되겠지요. 그렇
 다면 당신이 나를 모욕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칭찬한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바뀜.
 게 된다우.”

그 이듬해에 민 영감이 세상을 떠났다. 세상 사람들은

“민 영감이 비록 지나치게 넓고 기이하며, 엄매이지 않
세상 사람들의 주인공에 대한 평가 소개. 평가 객관성 강화
 고 호탕하지만, 그의 성격은 깨끗하고 곧으며, 즐겁고도
 밝다. <주역(周易)>에 밝고, 노자(老子)의 글을 좋아했으
 며, 그가 대체로 엿보지 못한 글이 없다.”

고 말했다.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무과(武科)에 올랐지만, 아직 벼슬
사실성 강화
 하지 못하였다. 올해 가을에 내 병이 더친 데다, 민 영감
 도 다시는 만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더
 붙여 나누었던 은어(隱語), 해학(諧謔), 풍자(諷刺) 등을 모
다양한 말하기의 결과물. <민옹전>의 내용 요약
 아서 이 <민옹전>을 지었다. 때는 정축년(丁丑年, 1757)
 가을이다. 이에 시를 지어서 민 영감의 죽음을 슬퍼한다.
글쓴이의 생각 집약

아아, 민 영감이시여

괴상하고도 기이하며, 놀랍고도 감쩍스럽구려

기쁘고도 노여우며, 또한 알밋구려

민 영감에 대한 ‘나’의 정서

저 바람벽의 까마귀가 끝내 새매로 화하지 못했구려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사실의 비유적 표현

聯). 제술관(製述官)에 명하여 하례(賀禮)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
 여, 연잎과 연꽃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붙였다.

28) 해서(海西) : 황해도.

29) 황충(蝗蟲) :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인 ‘누리’의 한자 명칭. 많은 수
 가 떼지어 날아다녀서, 이것이 이동할 때면 그 무리로 인해 해가 가
 리워지고, 그 무리가 앉은 곳에는 한 순간에 풀이 하나도 없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이 누리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하
 였다 한다.

30) 명(螟) : 명충(螟蟲) 나방의 유충(幼蟲). 벼·조·피 따위의 줄기의
 속을 파먹어 말라 죽게 하는 해충이다.

31) 모(蠹) : 모적(蠹賊). 농작물 또는 묘목의 뿌리를 잘라 먹는 해충의
 총칭이다.

32) 춘첩자(春帖子) : 입춘(立春)에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이는 주련(柱

영감께선 뜻을 지닌 선비였건만

^{↳지새(志士).}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쓰이지 못했구려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음}

내 그대를 위해 전(傳)을 지으니

^{↳입전(立傳).}

아아, 그대는 오히려 죽지 않을 거외다.

^{↳감정의 집약적 표현} ^{↳몸은 죽었지만 이름은 영원할 것임}

■ 등장인물

- * ‘나’ : 민옹의 전(傳)을 쓰고, 민옹과의 일화(에피소드)를 전달하는 서술자로,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까지 한다.
- * 민옹 : 남양의 무인(武人) 출신으로 첨사(僉使)라는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 묻혀 생활한다. 옛 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그들의 행적을 그리워하여 벽에다 쓰고 분발하기도 하고, 특히 은어(隱語) 기담(奇談)으로 ‘나’의 문객들과 설전(舌戰)을 벌이는 변사(辯士)이다.
- * 민옹의 아내 : 남편이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지만 무능하고 현실적이지 않음을 조롱하기도 한다.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의 아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 * 악공들 : ‘나’의 무리들을 즐겁게하기 위해 동원된 인물들이다.
- * 민옹과 설전(舌戰)하는 손님들 : 민옹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 그의 재치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조적 인물이다.

■ 핵심 정리

- * 작가 : 박지원(朴趾源)
- * 연대 : 18세기말
- * 성격 : 풍자적, 비판적
- * 형식 :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
- * 주제 : 무위도식하는 유생의 풍자
시정 세대에 대한 풍자와 비판
- * 특징 :
 - ① 인물과 관련된 여러 일화(삽화)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 ② 일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주인공에 대한 평가까지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대적 상황이나 부정적 계층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기반으로 한 비판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 구성 :
 - 발단 : 민 영감은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벼슬을 얻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불우하게 지냈으나 이야

기를 잘하는 재주가 있었다.

- 전개 : 거식증과 불면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나’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민 영감을 만나 입맛을 되찾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 위기 : 어느 날 민 영감은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손님들의 여러 질문 세례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가(聲價)를 높이고, 탐관오리를 황충보다 못하다고 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
- 절정 : 어느 날 찾아온 민 영감을 ‘나’가 파자(破字)로 놀리자, 그는 반대의 뜻으로 바꾸어 버렸다.
- 결말 : 다음 해 민 영감이 죽자 ‘나’는 그와 나누었던 은어와 해학과 풍자를 모아 전(傳)을 쓰고, 시를 지어 슬픔을 표현하였다.

* 출전 : <방경각외전(放瓊閣外傳)>

■ 해설 1

1757년(영조 33)에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한문 전기(傳記). 《연암별집(燕巖別集)》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다. 실존인물인 민유신(閔有信)이 죽은 뒤, 그가 남긴 몇 가지 일화와 작자 스스로 민유신을 만나 겪었던 일들을 엮고 뇌(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는 글)를 붙인 전기이다.

이 작품의 창작 경위에 대해서 작자는 그 작품 안에서 “금년 가을에 나는 병이 심하나 민옹을 볼 수 없으므로 민옹과 주고받았던 은어(隱語)·골계 등을 엮어 <민옹전>을 짓는다.” 하고 다시 <방경각외전> 자서에서 “민옹이 골계에 의탁하여 풍자한 것이 세상을 비웃는 공손하지 못함이 있으나 정구(驚句)를 써서 분발한 것은 게으른 이들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민옹전>을 썼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말은 문학의 효용을 설명한 것으로 회언(戲言)이 회언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임을 증언한 것이다. 이 작품은 민옹의 두 아들에 대한 것까지 서술하는 전(傳)이나, 회언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전의 형식을 빌려 소설을 실험한 것처럼 보인다. 민옹이 벽에 썼던 경구는 기발하고 묘미가 있으며, 작자와 민옹이 만나는 장면은 극적으로 생동하고 있다. 이 작품의 후반에서 민옹과 그를 상대한 여러 사람들의 갈등이 서술되고 있지만 그 갈등은 이미 힘의 균형을 잃고 있어서 민옹의 익살이 돋보이게 되고, 두꺼비와 토끼가 나이 다름으로 하는 민간설화가 적절히 이용되고, 인간을 황충으로 비하시킨 풍자가 날카로우며, ‘소금’을 ‘素金(소금)’ ‘멸구’를 ‘滅穀(멸곡)’으로 표기한 것과, 민(閔)을 파자하여 춘첩자(春帖子)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

이 작품은 유능한 재주와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펼 수 없는 조선 말기의 무반(武班) 계통을 풍자적으로 설정하여,

불우한 무관이었던 민옹을 그린 것이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작자의 인정의 기미를 날카롭게 파헤친 실학적 인도주의의 바탕을 엿볼 수 있다.

■ 해설 2

조선 후기 문인 박지원의 《방경각외전 放瓊閣外傳》에 수록된 9편의 전(傳) 가운데 세 번째 작품.

작가가 17~18세기 무렵에 만나 연령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깊은 우의를 나누었던 불우한 선비 민유신(閔有信) 옹에 대한 전으로, 그의 사후인 1757년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민옹은 무신란(戊申亂) 진압에 참가한 공으로 한때 관직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늙도록 벼슬을 하지 못한 가난한 무반(武班)이었으나, 항상 큰 뜻을 품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기인(奇人)이며 뛰어난 이야기 솜씨를 지닌 인물이었다. 명문가의 도련님으로 당시 우울증에 시달리던 작가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객으로 불러들이자, 민옹은 기지를 발휘하여 단번에 작가의 식욕 부진과 불면 증세를 고쳐주었다. 또한 과연 신선이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구냐, 불사약은 무엇이냐는 등의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여 좌중을 압도했다.

작자 자신도 민옹의 이름을 파자(破字)하여 놀리려 했으나 그의 능란한 임기응변에 지고 말았던 일화를 소개한 후, 민옹의 인품과 학식, 그의 전을 짓게 된 동기를 약술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추도사로 끝을 맺고 있다. 작자 자신이 작중 인물로 등장하고 부분적으로 1인칭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품 말미에 논평 대신 운문으로 된 추도사(誄)를 덧붙이고 있어, 다소 특이한 형식의 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꺼비와 토끼의 경쟁담, 밥이야말로 불사약이라는 이야기 등 우리 전래의 민담이나 수수께끼 등을 활용하고, 당시 서울에서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에 의해 설화 문학이 활발히 구연되던 현장을 생생히 재현한 점, 민옹과 같이 개성 있는 인물의 형상화에 성공한 점 등은 탁월한 민족문학적 성과로 평가된다. 귀신과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로장생술을 배격하며, 무위도식하는 도시민들을 황충(蝗蟲)으로 매도했을 뿐 아니라, 민옹과 같은 인재가 노사(老死)하고 만 데에 대한 비분(悲憤)을 표출한 점에서 강렬한 사회 비판적 주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